

정기선, HD현대 회장 취임 1년 계열사 통합·대규모 사업 ‘약진’

계열사 통합으로 사업 전문성 강화
국내외 공장 증설... 생산능력 확충
정유부문 경영 불확실성 해소 등 과제



정기선 HD 현대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오는 17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년간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조선·건설기계 계열사 통합과 미국 시장 공략, 대규모 신사업 투자 등 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를 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HD현대는 지난 2분기 영업이익 4조1246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상반기 영업이익도 6조9594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6조996억원)을 넘어섰다.

정 회장은 지난해 10월 17일 HD현대 사장단 인사에서 수석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1982년생인 정 회장이 2009년 현대중공업 입사 후 16년 만에 그룹 수장에 오르면서 HD현대는 37년 만에 오너 경영 체제로 복귀했다.

조선 부문에서는 지난해 12월 HD현대 중공업과 HD현대미포를 합병해 통합 HD현대중공업을 출범시켰다. 양사의 설계·생산 역량을 결집해 대형부터 중형 선박까지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한미 조선 협력프로젝트 ‘마스가’ (MASGA)에 대비한 합정 건조 역량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35년 매출 37조원, 방산 매출 10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미국 조선·방산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미국 방산기업 안두릴과 무인 수상정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키팅과는 현지 선박 건조 및 블록·모듈 생산 분야에

서 협력하고 있다.

미래 사업 투자도 본격화했다. 지난 9월 육상 발전용 엔진 생산기지에 8336억원,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심 기자재 생산시설에 2386억원 등 총 1조72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발전설비와 차세대 원자력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부문에서는 지난 1월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를 합병해 HD건설기계를 출범시켰다. 현대(HYUNDAI)와 디벨론(DEVELON) 두 브랜드를 운영하며 오는 2030년 매출 14조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엔진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이달 말 군산 엔진 신공장을 준공하고 방산·발전용 엔진 생산능력을 확충해 2030년 엔진 사업 매출 2조5000억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시장 확대도 추진 중이다. HD건설기계는 지난 5월 인도 굴착기 시장에서 월간 점유율 20.5%로 일본 히타치와 영국 JCB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칠레에서는 광산 밀집 지역에 거점을 신설하며 광산장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기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 7월 글로벌 박테크 기업과 최대 1조1212억원 규모의 장기 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연간 수주 목표도 기존 42억2200만 달러에서 51억8500만 달러로 22.8% 상향했다.

생산능력 확대도 병행하고 있다. 울산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지난 3월 미국 앨라배마 제2공장 증설에 착수해 북미 초고압 변압기 생산능력을 50% 늘릴 계획이다. 청주 배전캠퍼스의 중저압차단기 연간 생산능력도 500만대에서 850만대로 약 70% 확대했다.

다만 주력 사업의 경쟁 심화와 대외 불확실성은 과제로 남아 있다. 중국 조선업계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가운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종에서도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HD현대중공업은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도 진통을 겪고 있다. 노조는 올해 교섭 과정에서 7차례 전 조합원 부분파업을 벌였다. 지난 2일에는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반대 52.14%로 부결됐다.

정유 부문에서는 중동 정세에 따른 수익성 변동이 변수로 꼽힌다. 중동 전쟁에 따른 정제마진 상승으로 HD현대오일뱅크 실적은 개선됐으나 향후 유가와 정제마진 변동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자가 지난 1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삼성 동남아 가전 테크세미나 ‘더 브리프’에서 냉장고에 탑재된 카메라 기반으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AI 비전’ 기능을 시연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동남아 최적 AI 가전·솔루션 선포

베트남 하노이서 ‘더 브리프’ 개최

삼성전자가 동남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현지 생활환경에 맞춘 인공지능(AI) 가전과 통합 공조 솔루션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비즈니스 익스피리언스 스튜디오(BES)’에서 동남아 가전 테크세미나 ‘더 브리프(The Brief)’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사에는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 주요 국가의 미디어와 인플루언서들이 참석했다.

행사가 열린 BES는 삼성전자가 지난 8월 하노이 PVI 타워에 개관한 전시공간이다. 상업시설을 구현한 공간에서 삼성전자의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환경을 분석해 가전을 제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홈 기술을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냉장고에 탑재된 카메라를 활용해 식재료를 관리하는 ‘AI 비전’ 기능을 시연했다. 제품 관리 서비스도 소개했다. 전문 상담사가 원격으로 가전제품의 상태를 진단하고 조치 방법을 안내하는 ‘가전제품 원격지원(HRM)’과 와이파이 탑재 제품을 대상으로 최대 7년간 제공하는 무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고온다습한 동남아시아의 기후 특성을 고려한 공조 솔루션도 공개했다. 가정용 에어컨부터 호텔과 사무실 등 대형 상업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어컨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였다.

/차현정 기자 hyeon@

대한전선, 美 초고압 전력망 사업 턴키 수주

대형 수주 잇달아... 시장 입지 강화

대한전선이 올해 초에 이어 미국에서 대규모 초고압 전력망 사업을 턴키(Turn-key) 방식으로 수주했다.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망 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잇따라 대형 사업을 확보하며 현지 시장 입지를 넓히고 있다.

대한전선은 미국 법인 T.E.USA가 현지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를 턴키 방식으로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 T.E.USA는 엔지니어링과 시공 등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하고 대한전선은 초고압 케이블과 접속재 등 주요 자재를 생산·공급한다.

이에 따라 대한전선은 T.E.USA와 약 1200억원 규모의 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

하고 이날 공시했다. 엔지니어링과 시공 등을 포함한 전체 프로젝트 수주액과 발주처는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계약으로 대한전선은 지난 1월 약 1000억원 규모의 초고압 턴키 프로젝트에 이어 미국에서 대형 사업을 추가로 확보했다. 대한전선은 그동안 미국에서 발주된 500kV 초고압교류송전(HVAC) 지중 전력망 프로젝트를 모두 수주했으며 320kV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 공급 계약도 확보했다.

대한전선은 현지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같은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초고압 케이블에 더해 HVDC와 해저케이블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주를 늘릴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포스코인터, 에너지·팜 사업 기반 성장세

美 가스전 확보 등 수익 기반 확대
“철강 이익 감소 상쇄할 체력 갖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에너지·팜 사업의 이익 확대로 철강 부진을 매우며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호주 가스전 증산과 인도네시아 팜 기업 인수 성과가 실적에 반영되는 가운데 미국 가스전 확보를 추진하며 수익 기반을 넓히고 있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8조7295억원, 영업이익 390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5.83%, 영업이익은 23.68% 늘어난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에너지·팜 사업의 투자 성과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인 호주 천연가스 기업 세넥스에너지(SENEX)의 증산과 미얀마 가스전의 판매가격 상승·개발 투자비 회수 효과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팜 사업에서는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 인수로 확대된 생산 기반이 이익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세넥스에너지는 가동 중인 증설 설비의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늘려 내년부터



포스코인터내셔널 본사. /포스코인터내셔널

생산능력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미얀마 가스전은 전 분기보다 이익이 줄겠지만 고유가 반영에 따른 판매가격 상승과 4단계 개발 투자비 회수 효과가 감소 폭을 일부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 가스전은 개발 과정에 투입한 비용을 가스 판매를 통해 회수하는 계약 구조다.

팜 사업에서는 현지 자회사 PT.PAR이 재배 관리 개선과 농장 운영의 디지털화, 재식재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PT.PAR의 수확량 증가와 기존 농장의 양호한 작황이 더해져 팜 사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투자자산의 생산 확대에 이어 미국에서도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달 14일 코드에너지 자회사가 보유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마셀러스 분지의 비운영 셰일가스 자산을 5억5000만달러(약 7417억원)에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11월 준공 거래 종결을 목표로 한다.

인수 대상은 이미 가스를 생산하고 있어 거래 종결 이후 판매 수익이 더해질 전망이다. 현지 운영사가 생산·시추·인허가를 맡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생산가스를 직접 판매한다. 장기적으로는 생산가스 일부를 액화해 LNG 트레이딩과 연계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광양 제2 LNG터미널의 연말 준공을 준비하고 있다. 준공 이후에는 그룹사에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트레이딩·병커밍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재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호주 세넥스와 인도네시아 팜 등 인수 자산의 성과로 철강 트레이딩 부문의 이익 감소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체력을 갖췄다”며 “북미 가스전 인수로 2027년부터 이익 성장에 기여할 새로운 성장동력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